

공동체 소식



연중 제28주일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전교의 달

-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내가 누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하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명심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이웃에게 복음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본당 평일 미사 안내

- 10월 16일(화) ~17일(수) 저녁 미사 없습니다.
 - 10월 18일(목) 오전 10시 미사 있습니다.

구역 모임안내

- 2구역: 10월 20일, 토요일, 7:00 PM, 김병철 베네딕도 맥 15304 Foster St. Overland Park, KS 66223

10월 평신도 협의회 정기 회의

- 10월 21일, 주일 미사 후, 나자렛 관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마르 10,21)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금 주	62	511	165	445
차 주	450	212	172	6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정예찬 미카엘	김정원 안젤라 김정빈 바오로
차 주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김지안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 로마노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 주	최은미 아네스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말자, 김화년, 안현숙
차 주	봉사조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차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띠노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7	52명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속셈을 헤아리시니 그 무엇도 아버지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의 칼로 꿰뚫으시어, 거룩한 지혜의 빛으로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을 분별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고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림 묵상

하늘의 보물

가진 것을 모두 이웃과 나누며 주님을 따르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외적인 생활과 내면의 생활이 따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나눔과 청빈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때 절로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7,7-11
 <나는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헛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 2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4,12-13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7-30

생명의 말씀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복음은 길을 막 떠나시려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에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주춤해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쓸쓸해 보입니다. 한편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주님의 눈길에 마음이 자꾸 갑니다. 이어서 드는 생각은, ‘재물이 많은 성실한 젊은이가 이후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을까?’입니다. 특히 삶의 굴곡 속에서 몸과 마음을 정리해야만 했을 때 말입니다. 그는 그어느 땐가 마음이 움직이면서 재산 일부를 희사하였겠고, 그러다 보니 자유로워지고 평화가 그를 감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차츰 자선과 희사는 그 액수를 더해 갔을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시점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느님의 것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하면서, 존재론적인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였으리라 목상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렇게 바라던 영원한 생명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상하면서 스스로 자문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거나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분명 장애가 됩니다. 그

러나 동시에 그것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나의 삶의 한가운데로 모시려고 애쓰는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젊은이가 마침내 그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순간 자유와 평화 그리고 기쁨이 엄습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오늘의 복음환호송입니다.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그림으로 보는 복음목상

아이와 어른

- 영원히 늙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 그리고
-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마르 10,27)

-임의준 신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길 위에서의 만남

산티아고 순례 길을 걷다 보면 비슷한 시기에 걷는 사람들과 마주치곤 합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지니고 육체적으로 고된 여행이어서 그런지, 짧은 만남 속에서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특별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이 열흘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모녀사이로 보이는 스페인 아주머니 한 분과 옆에서 그 아주머니를 부추기며 걷는 딸의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과 눈인사 정도만 나누고 며칠 동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걷다 보면 들판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숲속을 걷기도 하고 땀별의 도로 옆 갓길을 하루 종일 걷기도 합니다. 또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날씨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한번은 산 중턱을 걷는데 예상치 못한 소낙비 때문에 삼시간에 도량물이 넘쳐 길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숲길을 헤매다 밤늦게 서야 가까스로 숙소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훌쩍 젖은 옷과 통통부은 발 때문에 신발을 벗고서 맨발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다 숙소를 발견하자 웬지 알 수 없는 설움 같은 것이 복받칩니다. 그런데 그때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발견하고는 환호성을 지르며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며 봤더니 저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길을 걸었던 그 스페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제 두손을 덥석 잡으시며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니 다시 저를 안아주시고 등을 쓸어주시며 제가 늦게까지 안 와서 얼마나 걱정하셨

는지 또 제 발은 괜찮은 건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그분에게 저는 마음을 활짝 열고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통해서 일까요.

그분은 마치 제게 수호천사와도 같았습니다. 홀로 걷는 순례길 여행이라 두려움이 가득 찰 때도, 때로는 걷잡을 수없이 외로움이 몰려올 때도, 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 길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준다고 생각하니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짧았지만 그분과의 따뜻했던 만남은 여행을 떠날 당시 일에 대한 회의감으로 지치고 절망적이었던 제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고, 마음이 따뜻해지니 내 안에 가득 담고 있었던 복잡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며 모든 것이 긍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 시간 동안을 타인을 걱정하며 기다려주셨을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감동이 밀려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그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를 만난 후 저는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지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지 물어봐 주고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스페인 아주머니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김호정 엘리사벳 | 영화배우-

교리상식

첫 강복이 그렇게 좋은가요?

‘첫 강복’이란 새로 서품된 사제가 서품 미사 직후 미사에 참석한 이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주는 강복을 말합니다. 준성사인 첫 강복의 효과는 아주 큼니다. 첫 강복을 받는 사람이나 강복을 주는 사람(새 사제)이나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큼 새 사제가 주는 첫 강복은 주는 사람의 새로움과 열정, 받는 사람의 갈망과 맞물려 더 큰 영적 유익함을 줍니다. 누군가 첫 강복의 효험에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유익보다는 미신적인 태도로 기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